중국 黑龍江省 동포 한국어 교사 연수

김 세 중
(국립국어연구원 학예연구관)

1. 파견 사업의 배경

중국에 사는 우리 민족은 조선족으로 통칭된다. 조선족의 인구는 공식적으로 192만으로 집계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215만 명 가량 된다고 한다. 정확한 숫자야 어찌되었든 약 200만의 중국 조선족은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전반에 걸쳐 남한 또는 북한에서 살다가 중국으로 건너간 사람들과 그들의 2, 3, 4세들이다. 중국의 200만 조선족은 중국의 다른 54개 소수 민족에 비해 월등하게 제 민족의 언어를 온전히 보존하며 사는 편이지만 상대적으로 그렇다 할 뿐 도회지에 사는 조선족의 2, 3, 4세들 중에는 우리말을 모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서 점차 한족으로 동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에 있다. 즉 중국의 조선족은 중국에 살면서도 제 민족의 언어를 보존해 가려는 강한 욕구를 갖고 있는 한편 도시 지역에서는 현실적으로 한어를 모르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환경 속에서 한어만을 구사할 줄 아는 젊은이들이 늘어가는 상황에 놓여 있다.

민족의 언어를 보존해 가려는 노력은 조선족이 집단적으로 모여 사는 지역에서는 조선족 학교에서 우리말을 가르치고 우리말로 수업을 하며 우리말 서적, 잡지, 신문을 출판, 발행하는 것으로써 행해졌다. 黑龍江省의 경우에는 조선어 방송국이 있어서 우리말 방송을 하였다. 중국은 공산당이 지배한 이래 북한의 어문 규범을 거의 그대로 수용해 온 형편이었다. 그러나 1980년대 들어서 개

혁, 개방을 시작하였고 한국과의 교류가 시작되었다. 남한의 언어가 밀려들어 오면서 중국의 조선족은 혼란을 겪게 되었다. 남한의 언어를 체계적으로 가르쳐 주는 교육을 받지 못한 채 남한의 말과 글이 밀려들어 오게 되었고 중국의 조선족은 남과 북 어느 쪽의 말을 표준으로 삼아야 할지 갈팡질팡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다.

중국의 우리말 교육은 초·중·고·대학교에서의 우리말 교육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출판물, 신문, 방송에서 실현된다. 중국의 개혁, 개방 이후 한국의 중국에 대한 경제적 진출은 눈부실 정도이다. 중국의 조선족은 이에 따라 한국어를 배우려는 동기가 매우 강렬한 상태이다. 중국의 조선족뿐만 아니라 한족까지 한국어를 배우려는 열기가 높은 형편이다. 이러한 정황에서 중국의 교육기관에 종사하는 우리말 교사들과 출판사, 신문사, 방송국의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표준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은 중국의 조선족이 염원하는 바일 뿐 아니라 우리의 국익에도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에 1992년부터 국립국어연구원은 한국문화예술진흥원과 협력하여 한국어 전문가를 중국에 파견하여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게 된 것이다.

중국의 조선족은 동북의 吉林省, 黑龍江省, 遼寧省 3성에 집중해서 살고 있다. 물론 기타의 성에도 조선족이 살지만 그 인구는 극히 미미하여 보통 중국의 조선족은 동북 3성에 산다고 말한다. 이 중 黑龍江省에는 조선족이 약 45만 명이 거주하는데 이 숫자는 吉林省보다는 적으나 遼寧省보다는 많은 편이다. 黑龍江省에는 조선민족출판사가 운영되고 있으며 한글로 신문을 발행하는 黑龍江신문사, 우리말로 방송하는 黑龍江조선어방송국이 있다. 그리고 조선족사범학교를 비롯하여 조선족중학교와 조선족소학교가 각 시와 향의 곳곳에 있다. 국립국어연구원의 黑龍江省 지역에 대한 전문가 파견 교육은 1994년에 시작되었다. 1992년과 1993년에는 黑龍江省에 전문가 파견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1994년에 파견된 것은 黑龍江省의 조선족 인구와 우리말 사용 정황에 비추어 볼 때 뒤늦은 감이 있었다. 黑龍江省은 또한 최근 들어 한국 기업의 삼강평원 개발에 따라 한국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있어서 한국어 보급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원을 고대하고 있는 형편이다.

2. 일 정

7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 국립국어연구원 최규일 어문실태연구부장과 함께 중국 黑龍江省 지역에 파견되어 한국어 어문 규범을 보급하고 한국어 사용 실태 조사를 하였다. 14박 15일 간의 일정은 다음과 같다.

7월 16일(일)
9 : 00 김포공항 출발
10 : 51 북경공항 도착(박연옥 선생[黑龍江省 민족연구소] 마중)
오후 북경 시내 서점에서 자료 구입, 神路圓대반점 투숙

7월 17일(월)
오전 북경 공항에 다녀옴
오후 북경 시내 관광, 神路圓대반점 투숙

7월 18일(화)
08 : 30 북경공항 출발
09 : 55 하얼빈공항 도착
13 : 55 하얼빈역 출발
19 : 55 목단강역 도착
21 : 00 만찬(김광범 목단강시 민족사무위원회 주임 주최)
22 : 00 公元대반점 투숙

7월 19일(수)
08 : 45 목단강시 조선족중학교 도착
09 : 00－10 : 50 강의 (김세중 : 우리말의 예절)
10 : 50－12 : 40 강의 (최규일 : 한국어의 이해)
16 : 00 海林시 도착, 林海大厦 투숙

7월 20일(목)
08 : 55 海林시 조선족소학교 도착
09 : 00－10 : 50 강의 (김세중 : 우리말의 예절)

10 : 50－12 : 40 강의 (최규일 : 한국어의 이해)
14 : 00 海南鄕 도착
14 : 00－16 : 30 海南鄕 조선족중학교 교원들과 좌담회
18 : 00 목단강시 도착, 만하탄반점 투숙

7월 21일(금)
09 : 00－12 : 00 목단강시 黑龍江조선민족출판사 좌담회
오후 휴식, 만하탄반점 투숙

7월 22일(토)
09 : 00－13 : 00 목단강시 조선족예술관, 도서관 방문 좌담회
오후 휴식, 만하탄반점 투숙

7월 23일(일)
06 : 52 목단강역 출발
12 : 25 尙志역 도착
오후 휴식, 尙志빈관 투숙

7월 24일(월) 尙志시 조선족중학교 연수
08 : 50 尙志시 조선족중학교 도착
09 : 00－11 : 00 강의 (최규일 : 한국어의 이해)
11 : 00－13 : 00 강의 (김세중 : 우리말의 예절)
오후 휴식, 尙志빈관 투숙

7월 25일(화)
09 : 00 河東조선족향 도착
09 : 10－11 : 00 강의 (최규일 : 한국어의 이해)
11 : 00－12 : 50 강의 (김세중 : 우리말의 예절)
오후 휴식
18 : 00－20 : 30 만찬 (김창희 尙志시 부시장 주최), 尙志빈관 투숙

7월 26일(수)
10 : 00 一面坡역 출발
12 : 50 하얼빈역 도착
오후 시내 서점에서 자료 수집, 민족반점 투숙

7월 27일(목)
09 : 30—12 : 30 黑龍江신문사 좌담회
오후 하얼빈시 관광
18 : 00—21 : 00 만찬(이정호 黑龍江省 민족사무위원회 부주임 주최), 민족반점 투숙

7월 28일(금)
오전 하얼빈 혁명박물관 관람
11 : 30—12 : 30 오찬 (국립국어연구원 주최)
오후 심양행 항공편 결항, 하얼빈 기장빈관 체류

7월 29일(토)
15 : 00 하얼빈 공항 출발
16 : 30 심양공항 도착
17 : 30 호텔 투숙

7월 30일(일)
12 : 10 심양공항 출발
14 : 40 김포공항 도착

3. 파견 사업의 성과

7월 19일(수) 목단강시 조선족중학교(교장 : 沈范鎬)에서 약 60명의 교원을 대상으로 한국어 연수를 실시하였다. 이튿날인 7월 20일(목) 오전에는 海林시로 이동하여 조선족소학교(교장 : 한정자)에서 약 60명의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였다. 오후에는 海南鄕으로 이동하여 조선족중학교(교장 : 李俊)에서 조선족중학교 교장 이하 간부들과 우리말 교육의 문제점에 대하여 좌담하였

다. 7월 21일(금)에는 黑龍江省 조선민족출판사(사장 : 尹武榮)를 방문하여 좌담회를 하였다. 7월 22일(토)에는 목단강시 조선민족예술관(관장 : 鄭桂河)을 방문하였다.

7월 24일(월)에는 尙志시 조선족중학교에서 약 70명의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였다. 7월 25일(화)에는 河東조선족향에서 교사 약 40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였다. 7월 27일(목)에는 黑龍江신문사(부사장 : 朱鉉男)를 방문하여 좌담회를 하였다.

이번 파견 사업의 활동은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졌다. 하나는 조선족소학교, 조선족중학교의 교원들을 대상으로 한국어의 개념, 말과 글, 우리말의 예절에 대하여 강의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출판사와 신문사를 방문하여 우리말 사용에 대하여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사들과 조선 어문 규범 문제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고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해 토의한 것이다.

우리말 교원들을 대상으로 한 강의는 한국어의 개념, 말과 글의 용법과 사용 등 초보적인 개념을 이해시키는 데에 주력하였고 우리말의 예절에 대해 집중적으로 강의하여 그 동안 언어 예절에 대해 거의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었던 교원들에게 우리말의 예절을 알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였다.

목단강의 黑龍江省조선민족출판사를 방문해서는 현재 조선민족출판사에서는 한어로 된 서적을 더 많이 출판하고 있으며 우리말로 쓰인 책의 출판은 무척 위축되어 있는 실정을 청취하였다. 그 원인은 시장에서 찾아졌다. 즉 우리말로 쓰인 책을 출판하여도 우리말을 해독할 수 있는 인구가 조선족에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큰 이익을 남길 가능성이 별로 없고 따라서 많이 팔릴 수 있는 한어 책을 더 많이 출판한다는 것이었다.

하얼빈의 黑龍江신문사를 방문해서는 남북한의 어문 규범을 하루 빨리 통일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중국의 조선족으로서는 남북한이 서로 같은 어문 규범을 가지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를테면 외래어 표기법이 달라서 같은 나라를 남북한이 서로 다르게 부르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조선족은 어느 쪽을 따라야 할지 막막한 실정이며 이에 따라 혼란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보도 용어의 경우 그 때 그 때 시사 용어를 정해서 보도를 해야 하는데 남한, 북한의 용어와 통일시킬 필요를 제기하였다. 黑龍江신문사의 경우 서울에 특파원을 한 명 상주시키고 있는 정황이고 특히 일요일판은 서울에서 보내오는 기사로 메우는 실정이라 했다. 예전에 한국과는 전혀 교류가 없었고 오직 북한과만 교류하던 때와는 상황이 판이해졌다. 그리고 국가 어문 정책상으

로도 비록 명문상으로는 아직도 중국의 조선족의 어문 규범은 북한의 어문 규범을 따른다고 규정이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그 규정에 별로 구애받지 않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한의 말, 보도 용어를 그 때 그 때 공급받을 수 있는 통로나 체계를 갈망하고 있음을 말하였다. 이러한 희망에 대하여 국립국어연구원으로서 즉각 응답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어서 답을 유보하고 다만 그러한 통로를 마련해 줄 수 있는 길을 찾아보겠다고 하였다.

黑龍江신문사 좌담회에서 국립국어연구원이 편찬하고 있는 국어대사전의 개요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이에 대해 신문사, 방송국 관계자들은 크게 환영하는 뜻을 나타냈다. 남북한의 언어 차이 때문에 불편을 겪고 있는 중국의 조선족들에게는 남북한의 언어를 포괄하는 사전의 출판은 크게 기대되는 일로 보였다. 현지 동포 관계자들은 북한의 언어를 어떻게 반영하는지, 얼마나 반영하는지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보였다. 이에 대해 북한의 언어를 표준어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북한어임을 표시하는 수준에서 북한어를 반영한다고 대답하였고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수긍하는 태도를 보였다.

4. 문제점과 대책

한국어 전문가 파견 사업과 동포 초청 연수 사업은 중국의 동포들에게 남한의 표준 한국어를 보급하기 위해서 행한다. 그리고 대상 기관은 학교와 출판사, 신문사라고 할 수 있다. 대상 인원은 학교의 교원들과 출판사, 신문사의 어문 문제 담당자들이다. 사업이 보다 높은 효과를 얻으려면 평소에 교원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부서나 출판사, 신문사 관계자와 교류와 접촉을 늘 하고 있어야 한다고 본다. 교류와 접촉을 통해서 그쪽에서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알 수 있고 그쪽의 필요에 맞게 준비를 해 갈 수 있다.

현재의 사업 진행은 평소에 현지 기관과 교류나 접촉이 사실상 전무하다시피한 상태에서 7월이 되면 전문가가 현지 사정에 대한 파악이 거의 되지 않은 상태에서 파견되어 연수를 행하고 온다. 따라서 한국어 전문가 파견 사업은 다분히 1회적인 행사로 끝나게 될 우려가 있다.

평소에 현지 기관과 교류와 접촉을 할 필요성은 여러 가지에서 발견된다. 우선 현지에서 학생들에게 우리말을 가르치고 또한 출판과 신문 제작을 하는 데에 가장 필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보다 잘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아야 필요에 맞는 자료를 가져갈 수 있고 필요에 맞는 강의 준비를 해

갈 수 있다. 현지 교사들의 수준이나 지식 정도에 대한 파악도 평소에 교류와 접촉을 한다면 상당한 정도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번 파견 연수의 효과에 대한 파악도 현지 기관과 늘 연락을 유지하고 있다면 가능하다.

그러나 현지 기관과의 교류나 접촉을 하는 데에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중국쪽의 접촉 창구가 문제가 된다. 黑龍江省 민족사무위원회(부주임 : 李禎鎬)는 교육기관이 아니고 행정 기관이어서 한국어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의 요구 사항을 알지 못한다. 그렇다고 현지 교사들과 개개인과 접촉하는 것 역시 사회주의 국가의 체제상 불가능하다. 黑龍江省 교육학원이 어떤 구실을 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되나 현재로서는 상급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성민족사무위원회가 국립국어연구원을 직접 상대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학원과 교류하기는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黑龍江省 민족사무위원회 어문처는 조선족 처장이 정년 퇴직으로 물러남에 따라 우리말을 전혀 모르는 몽골족 여성이 어문처장이 되었다. 黑龍江省의 소수 민족 중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진 민족이 몽골족이고 그 다음이 조선족이다. 여하튼 몽골족이 黑龍江省 어문처장이 됨으로써 우리말 교육 문제에 대해 상의하고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대상이 불분명해지고 만 상태다. 따라서 성교육학원이나 조선어문교연회 같은 조직과 교류를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